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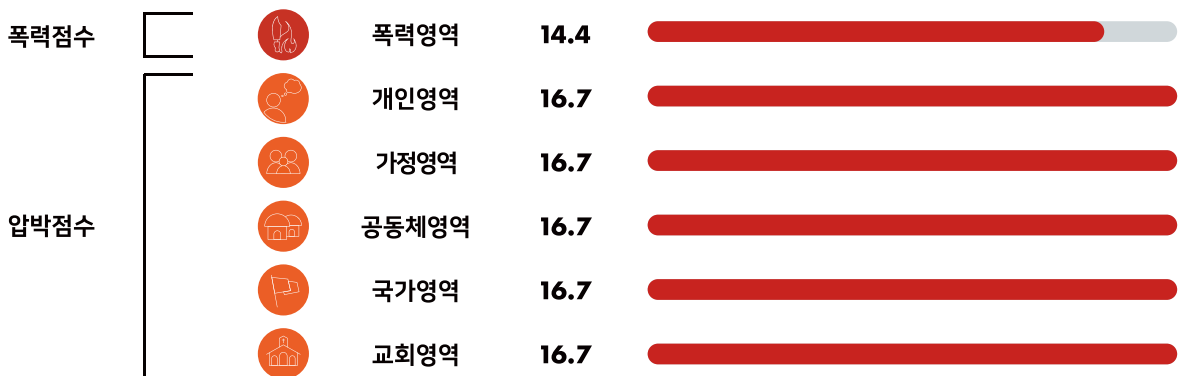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북한(NORTH KOREA)

기독교 박해지수
1 위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6x16.7=100)

중요한 발견

북한에서는 종교나 신념의 자유가 없다. 정권은 모든 시민을 철저히 감시한다. 기독교인이 발견되면 그들과 그들의 가족은 정치범으로 노동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즉시 처형된다. 기독교인은 사회에서 전혀 자리를 잡지 못한다. 따라서 다른 기독교인들과 모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극도의 비밀 속에서만 시도해야 한다.

(우리는 외면할 수 없다, CSW, 2024년 9월)

2020년에 제정된 "반동사상문헌법"은 성경을 제28조에 언급된 금서 목록에 포함시켜, 기독교를 국가가 여전히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양에서 방문객들에게 보여주는 교회들은 단지 선전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북한 (NORTH KOREA)

국가 정보

지도자 : 최고 지도자 김정은

인구 : 26,245,000명

기독교인 수 : 400,000명(오픈도어 추정치)

주요종교 : 불가지론

정부형태 : 정부 독재, 단일 정당 공산주의 국가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400,000	1.5
불가지론자	14,786,370	56.3
무신론자	4,022,399	15.3
그 외	3,345,572	12.7

출처¹

1900년대 초, 평양 대부흥이 시작되었고, 북한의 수도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고 선교사들은 전국에 교육 기관을 설립했다. 일본 통치하에서 교회는 점점 더 박해를 받았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한 후, 김일성이 권력을 잡고 공산주의(무신론) 정권을 세웠다. 한국 전쟁(1950-53) 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이 도망쳤고, 그 후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살해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외딴 지역으로 추방되었다. 나머지 교회는 지하로 들어갔다.

김일성주의(통치 가문 숭배)는 국가가 정한 종교이다. 모든 시민은 매주 자기 비판 세션에 참석하고 100페이지 이상의 이념 자료를 암기해야 한다. 유교의 영향

을 받아 북한은 모든 시민을 세 계층으로 나누는 성분이라는 사회적 분류 시스템을 개발했다. 핵심 계층(사회 28%), 동요 계층(45%), 적대 계층(27%)으로 나뉜다. 기독교인과 그 후손은 적대 계층으로 분류된다. 기독교는 싸워야 할 위험한 외래 종교로 여겨진다. 오픈 도어는 수만 명의 기독교인이 노동 수용소에 있다고 추정한다. 2020년 유엔 보고서는 이러한 수용소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강제 나체, 강간 및 강제 낙태를 포함한 인권 침해를 강조했다. 기독교 남성들도 노동 수용소에서 신체적 폭력과 학대를 경험한다.

신뢰할 수 있는 종교 통계 데이터는 없다. 오픈 도어는 기독교인의 수를 40만 명으로 추정한다. 불교와 유교의 추종자들도 있으며, 이들의 철학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내부적으로 쉽게 따를 수 있다.

2011년부터 집권한 김정은은 의회, 정부, 군대를 통제하고 있다. 그는 북한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며 로켓 및 핵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오랫동안 예상된 움직임으로, 북한은 2022년 9월에 자신을 "핵무기 국가"로 선언했다(BBC 뉴스, 2022년 9월 9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은에 대한 존경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거의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¹ 정보출처: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 (Leiden/Boston: Brill, 2024년 3월 접속)

와 동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경제적으로 북한은 국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권은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접근을 거부한다. 북한 정보기관과 중국 경찰 간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주로 여성인 탈북자들이 식별되고 강제로 송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얼굴 인식 기술도 이를 더 쉽게 만들었다. 현재 북한은 농업 생산량 감소와 결합 있는 식량 배급 시스템으로 인해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북한의 다양한 교도소와 완전 통제 구역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신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 거주 기독교인 공동체들

이 범주는 WWL 점수와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이 범주에 속하는 기독교인은 한국전쟁(1950~1953) 이전에 북한에 거주했던 기독교인과 그 후손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쟁으로 사망하거나 남쪽으로 피난을 가거나 고립된 마을로 추방되었지만,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중 소수는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지하 교회를 형성할 수 있었다. 연좌제 원칙으로 인해 알려진 기독교인의 후손은 극복할 수 없는 사회적 장애물에 직면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다.

기독교 개종자들

개종자들은 공산주의 또는 '김일성주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1990년대 대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교회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온 후에도 새로 찾은 신앙을 유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을 나누었다 (AP 통신, 2018년 4월 5일).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는 WWL 점수와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공산주의와 포스트 공산주의

북한은 지도자들의 인격 숭배에 의해 지배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산주의 관습과 사회적 통제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종교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며 기독교인은 적대적인 계층의 일부이다. 성분(북한의 사회 계층화 시스템)에 따르면 적대적인 계급에 속한다.

독재적 편집증

김정은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업적에 대한 언급을 줄이고 자신의 업적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국가 선서를 수정했다. 김정은은 2020년에 여러 차례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고, 북한 달력에서 가장 큰 기념일인 태양절에 그들의 '신사'를 방문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얼마나 권력을 공고히 했는지 보여준다.

위의 출처는 거의 하나로 섞일 정도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두 가지의 주요 가해자는 정부 관리와 조선 노동당이며, 그다음은 시민과 대가족이다. 당국의 최고 목표는 국가와 지도자의 생존이다. 시민들은 이웃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발견하면 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셀 수 없이 많은 북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노동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여성 수감자들은 성폭력과 강간을 당하고 있다. 탈북자 중 상당수가 여성이며,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 여성들은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송환된 여성 탈북자와 수감자들은 심문 과정에서 성폭력에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강제 낙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한 국내 전문가는 “기독교인 여성 수감자들은 더 심각한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심지어 인간으로 간주되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인신매매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성적

남성

가부장적인 북한 사회에서 국가가 주민을 감시하는 대상은 특히 남성 가장에게 집중되어 있다. 모든 남성 성인은 정부에서 할당된 직장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직장에 출퇴근을 확인해야 하며 사적인 이유로 일을 중단할 수 없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군대(남성의 군 복무 기간은 10년), 대학, 직장에서 가장 낮은 직책에 배치되며, 당원 자격이 박탈된다. 남성은 또한 노동 수용소에서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당한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직장 / 직업 / 사업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군대 / 병역 징집 / 양심에 반하는 복무
- 폭력 - 신체적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5	1	98
2024	1	96
2023	1	98
2022	2	96
2021	1	94

북한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최고 수준의 압력을 유지한 채 WWL 2025에서 1위 자리를 지켰다. 여러 그룹의 기독교인들이 체포되어 노동수용소로 끌려가면서 폭력 지수가 상승했다. 북한 정권은 이념적 순수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외부의 영향력을 인지하거나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악랄하게 숙청하고 있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보안상의 이유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공개할 수 없다.

개인 영역

경찰과 정보 요원이 예고 없이 가정을 수색한다. 기독교 관련 자료가 발견되면 국가에 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가족 전체가 추방, 투옥 또는 처형될 수 있다. 미등록 스마트폰이나 라디오를 사용하여 승인되지 않은 미디어에 접속하면 처벌을 받는다. 기독교인들은 밤에만 감히 이불 속에 숨어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 한 국가 전문가의 말처럼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비록 스스로 행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극도의 불충성 행위'로 인식된다. 시민들은 가족을 포함하여 정권의 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신고하도록 훈련받는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배운 내용과 상반된 행동을 하는 부모를 발견하면 비난하도록 권장한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기독교인 부모들은 자녀가 십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영역

세례는 투옥이나 처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사생활에서 보았듯이 자녀와 신앙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기독교인들은 동화로 위장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노력한다. 일부 탈북자들은 비기독교인 배우자에게 고위층 부모가 있는 경우,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강제로 이혼을 시도하고 관계에 대한 모든 기록을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연좌제 원칙에 따라 가족 전체가 심문을 받고 투옥된다. 김일성주의는 유아원부터 대학까지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핵물리학 같은 과목의 박사 과정에서도 교과 과정의 30%가 주체사상 연구와 관련되어 있다. 기독교는 미국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전복적인 이데올로기로 묘사되고, 기독교인은 민족의 반역자이자 스파이로 간주된다. 한 북한 전문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운 대로 자연스럽게 기독교와 기독교인을 혐오한다”고 말했다.



공동체 영역

북한은 공산주의 주민 감시 시스템인 인민반을 적용하고 있다. 주택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국에 보고된다. 경찰이나 보위부에 의한 무작위 심문은 모든 주민에게 흔한 일이다. 그 목적 중 하나는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기독교인을 찾아내어 처형하거나 수용소나 외딴 산악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다. 한 국가 전문가에 따르면 심문(및 관련 고문)은 북한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기독교인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면밀한 감시를 받으며 좋은 학교, 대학, 군대, 노동당에 접근하지 못한다. 모든 북한 주민은 직장이나 학교를 오가는 길에 동상에 절을 해야 하며, 자기비판 모임이나 국가 의식과 같은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국가 영역

새로운 반동 사상법은 헌법 68조와 함께 시민은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가지지만 “누구도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와 사회 질서를 해치는 구실로 삼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 기능을 위해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당 규약인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다. 이는 북한 정부와 사회의 통치 원칙이다. 건국의 아버지 김일성의 가르침에 기초한 이 규정은 최고 지도자(수령)와 조선노동당에 대한 체제의 흔들림 없는 충

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영 미디어는 기독교인을 국가의 사악한 배신자로 묘사하고 선교 활동을 “테러 행위”로 지칭하는 반기독교 콘텐츠를 방송한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모든 미디어는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강도, 사기꾼, 미국의 스파이, 민족의 반역자로 악마화한다. 대중 매체뿐만 아니라 학교 교과서, 기타 출판된 책, 영화, 공식 문서, 사상 학습 자료에서도 기독교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독교인들은 재판 없이 자의적으로 체포되어 처벌을 받는다. 법정 소송에 직면한 외국인 기독교인들도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장기간 자의적 구금 상태에 놓여 있다.

교회 영역

북한의 종교의 자유를 보여주는 '증거'로 관광객들이 참석하는 평양의 공식 교회에서 열리는 예배를 제외한

모든 교회 활동은 북한에서 불법이다. 지하 교회 그룹이 발각되어 기독교인들이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살해된 사례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 북한 정권은 특히 지도자를 찾아 처벌하고 나머지 네트워크에 대해 심문하는 데 관심이 있다. 북한을 출입하는 관광객은 수하물을 검사하여 개인용 성경 한 권만 반입하고 성경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보고 기간 동안 북한을 방문한 관광객은 많지 않았지만). 기독교 자료의 수입과 제작은 금지되어 있다. 한국 통일연구원(KINU)의 2021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처형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성경을 소지하는 것보다 성경을 배포하는 것이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북한 주민들은 정부의 허가 없이는 북한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집회에 참석하거나 다른 기독교인들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북한은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북한은 기독교인의 다음 권리를 정기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처형당한다 (ICCPR 6조)
- 기독교인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추방되어 고문을 당하고 고된 노동의 삶을 강요받는다 (ICCPR 7, 8조)
- 북한 주민의 삶의 모든 측면은 국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시되고 통제된다 (ICCPR 예술. 17)
- 기독교인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자신의 신앙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ICCPR Art. 18)
- 기독교인은 예배를 위해 모이거나 만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ICCPR 제21조)
- 기독교인은 “적대적”으로 분류되어 신앙에 근거하여 차별을 받는다 (ICCPR 제26조)

이외 소수 종교집단의 상황

미국 국무부(IRFR 2023 북한)에 따르면:

“코리아 퓨처는 일반 시민과 관리 모두 불법적으로 샤머니즘을 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관들은 많은 사람들이 전통 의식, 점술, 관상학(얼굴 특징에 따라 개인의 운명을 읽는 것), 퇴마, 부적 사용, 출생 차트, 타로 카드 사용 등 샤머니즘 관습에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문서화했다. 한 소식통은 개인이 결혼을 계획하거나 사업 거래를 하거나 건강 문제를 처리하거나 기타 중요한 결정을 고려하기 전에 점쟁이와 상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RFA에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아시아 프레스에 정부 관리들도 건강과 직업에 대해 점술가들과 상담한다고 말했다. 비정부기구는 당국이 샤머니즘 관행에 대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오픈도어의 북한 사역

북한에서 집중하는 사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중국 내 네트워크를 통해 필박받는 북한 신자들에게 긴급 구호품(식량, 의약품, 의류 등)을 공급
- 라디오 방송을 통한 교육
- 중국에 있는 북한 신자들에게 피난처, 훈련 및 교육 자료 제공(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음)

